

<하기 글은 2019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 10월 정기회의

가을바람이 느껴지던 지난 10월 2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는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 10월 정기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상호 간의 반기문 인사로 시작된 회의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캠퍼스 인근 아파트 임주민의 민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앞을 지나는 통근버스 과속에 대한 민원으로, 회사에서는 출퇴근용으로 운용되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계도활동을 진행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로변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소통기자단 활동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개최된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 과연 안전할까?」라는 박유정 소통기자의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댓글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기사 댓글의 대부분은 수증기의 무해함을 설명해주어 유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 과연 안전할까?

삼성아이기

2019.10.18 10:00



여러분 혹시 공장단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하얀 연기, 본 적 있으신가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도 이런 연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사실 수증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증기이긴 해도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 나오고 있는 건지, 물에 좋지 않은 성분이 함께 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있었던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 기사, 꼭 읽어야 합니다!

대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어떤 물질일까요? 그리고 그 수증기는 인체에 무해한 걸까요? 소통기자가 이 수증기의 진실을 알아보자 직접 봄에 그 해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두 번째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진행사항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정세현 위원은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라고 전하며, 10월은 자원봉사 대축제라고 불리는 만큼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달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나눔문화인 평택엔젤스는 창의탐구교실 운영을 통해 700여 명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더 확대해 많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언론기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백상흠 간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는 삼성전자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최근 악화된 반도체 시장에 따른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함께 공유하며 경영진 및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축 임찬무 위원은 "평택캠퍼스 인사팀으로 쓰레기 처리 때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차가 중앙선 주변의 쓰레기는 잘 정리하지만 도로 옆 쓰레기는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길거리 정화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현 위원이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삼성물산의 청소자 정화가 끝나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임직원들이 도로 옆 정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축 김종호 위원은 "삼성전자는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사회공헌활동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수 의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길이기에 향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평택 지역아동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려 중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찬무 위원이 "지역주민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지역주민 초청행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라고 묻자, 회사측 박진수 의장은 "일정 조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 10월 정기회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나아가고 같이 발전하는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